

탄핵심판 마무리 수순...尹측, 대리인 총사퇴 재판 지연시키나

헌재 한덕수 전 총리 증인 신청 기각에 “중대 결심” 주장 조성현 수방사 단장 “국회 들어가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중대한 결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한 헌재를 겨냥한 경고성 발언으로, 법조계에서는 법률대리인 총 사퇴 등 재판지연 전략의 하나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헌재 대심판정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증인신문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오후에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나왔다.

당초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 전 청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들였다.

이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한 헌재에 항의하며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탄핵심판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판인데도 지금과 같은 심의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중대한 결심을 법률대리인단의 전원 사퇴 등으로 보고 있다. 대리인단이 실제 전원 사퇴할 경우 재판 지연 가능성이 높아진다.

윤 대통령 대리인이 헌재 재판관에게 연성을 높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직접신문을 요청했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 대행이 “(질문 내용을) 적어서 대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마이크를 앞으로 당기며 “대리인한테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이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규정의 근거가 뭐냐, 근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문 대행에게 항의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에 문 대행은 “법적 근거는 소송지휘권 행사”라며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증인으로 나선 조 원장은 홍장원 전 국무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 메모’를 파악한 결과 사실관계가 달랐다고 증언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의 메모가 총 4가지에 달한다는 진술을 펼쳤다.

김형두 헌재 재판관은 조 원장에게 30여분간 질문하며 증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재판관은 “홍 차장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화에서 ‘비상계엄 한 거 봤지’, ‘이번 기회에 꼭 잡아들여라’,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 주겠다’,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 지원해라’고 했다고 한다”며 “대통령이 홍 차장에게 굉장히 많은 지시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해서 ‘지금 어디신가요’라고 묻는 등 황당한 얘기를 했다.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원장은 자신과 윤 대통령과의 통화는 30초가 안 됐으면서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홍 차장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확신이 없다. 홍 차장 말을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대답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삼청동에서 윤 대통령이 한 말을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고, ‘단전·단수’라는 말을 문건에서 본 기억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 경찰을 투입한 이유는 단순 질서유지 차원이었고, 국회 봉쇄가 목적이었다면 35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이 필요했지만 실제 투입은 1740명이었다는 것이 김 전 청장의 진술이다.

반면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동연 경기지사가 13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5·18 당시 희생된 경기도민 고(故) 최상필씨의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김동연 “이재명 민주당 아닌 더 큰 민주당 만들어야”

광주 방문 국립5·18묘지 참배 “연대로 정권교체 초석 만들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13일 광주를 찾아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더 큰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해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14일 경총강연이 있어 광주에 왔고, 5·18 묘지도 방문했다”며 “늘 ‘광주 정신으로 시작하자’는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에 올 때마다 5·18묘지를 찾아 뜻을 새기고 초심을 다진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방명록에 ‘광주의 영령이시여 내란을 종식하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제7공화국을 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라고 적었다.

그는 “광주시민들께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민주당의 이재명, 민주당의 김동연, 민주당의 김경수, 민주당의 김부겸 등 ‘더

큰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의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정권 교체만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뒤 “우리 시민들이 계엄과 내란을 막기 위해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가지고 나왔듯이 이제는 빛의 혁명을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 빛고를 광주에서부터 ‘빛의 혁명’을 끌어내는 연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의 기적을 다시 만들어 대한민국이 이기는 길,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광주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광주가 선택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방명록에 제7공화국을 쓴 것에 대해서는 “1987 체제가 시효를 다했고 계엄과 내란 사태까지 벌어지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다양한

가치를 가진 정치 세력, 깨어있는 시민의 힘까지 함께 제7공화국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헌법,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등 경제 개헌과 권력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며 “분권형 4년 중임제를 하고 책임 총리제를 해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참배 후 광주 518번 버스 탑승,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면담, 무등산 문빈정사 노무현의 길 걷기 등 일정을 소화했다. 14일에는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 육현진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면담 등을 할 예정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32%·김문수 13%

NBS 여론조사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7%,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6%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대표 조사(NBS)에서 정당 지지율이 이같이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 지지율은 2% 포인트(p), 민주당 지지율은 1%p 각각 하락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32%,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3%, 오세훈 서울시장 8%, 홍준표 대구시장 5%,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4%

순으로 조사됐다.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서 ‘호감이 간다’는 응답 비율은 이 대표가 3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김 장관 27%, 오 시장 26%, 홍 시장 20%, 한 전 대표 20%였다.

올해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40%,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5%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산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21.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